

그·날·의·도·로

#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부산의 자부심,

## 광안대교



### 부산의 지도를 바꾼 국내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9호 광장과 해운대구 우동 센텀 시티(올림픽교차로)를 연결하는 광안대교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랜드마크이다. 공식 명칭은 광안대로이며, '다이아몬드 브릿지'라는 영문 애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총연장 7.42km, 폭원 18~25m 규모의 왕복 8차로 복층 교량으로 건설되었으며, 전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제한 속도 80km/h로 운영되고 있다. 1994년 12월 착공하여 약 8년간의 공사 끝에 2002년 12월 준공되었고, 2003년 1월 6일 정식 개통되었다.

### 도심 정체 해소와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

1990년대 부산은 수영로를 비롯한 도심 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에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동부산권의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광안대교 건설이 추진되었다. 초기 계획은 왕복 4차로의 단층 콘크리트 다리였으나, 향후 해운대 신시가지와 기장 일대의 발전을 예견하여 복층 구조의 8차로 현수교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는 오늘날 폭증한 교통량을 감당하게 한 결정적인 선택으로 평가받으며, 부산항 화물을 경부고속도로와 신속히 연결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축이 되었다.


### 갈매기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공학적 조형미(美)

광안대교는 중앙부 900m의 현수교와 720m의 트러스교, 5,800m의 접속교로 구성되어 있다. 사장교가 아닌 현수교 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의 날갯짓과 파도의 곡선을 이미지화하여 광안리 해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공학적으로는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초속 45m의 강풍과 7m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건설되었다. 특히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연출하는 첨단 경관 조명은 밤마다 부산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해상 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 물류의 동맥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의 장으로

광안대교는 단순한 도로의 기능을 넘어 부산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개통 이후 수영로와 해운대 지역의 교통 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센텀시티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부산꽃축제의 주 무대이자 영화 '블랙 팬서' 등 수많은 대중매체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될 만큼 높은 위상을 가진 광안대교는 오늘도 부산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낭만을 선사하고 있다.

물류의 혈맥이자 예술적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는 앞으로도 부산의 빛나는 미래를 환하게 밝혀 주는 '다이아몬드 브릿지'로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